

5-3-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목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시편 23:1-6

말씀 제목: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소망 가운데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

천지를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어 그분의 양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자신 외에 어떤 부족함도 없는 신부의 삶을 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다윗이 증거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가득찬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써 원하기만 하면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자신의 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윗처럼 그들의 혼이 진토에 붙어있는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피가 혼 속에 뿌려짐으로 인해 양심 속에 이는 모든 죄들이 용서되어 제거됨에 따라 그리스도의 할례(골 2:11)를 통하여 진토같은 육신의 죄들을 벗고 혼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혼이 소생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의 길들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됨으로써 비록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면서 원수 마귀의 면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잔이 넘치는 영적인 풍요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일에 대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롬 5:1-2)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의 능력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롬 5:3-9)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즐거워하는 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롬 5:11)

이러한 즐거움 속에 살던 다윗의 삶은  
매일 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데  
증거했습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 23:6)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게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다윗이 말한 주의 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원히 남편이시며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곳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온 세상을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 능히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같이 예비되었더라,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 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분에는 열두 천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계 21:2,10-12)

사도 요한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도성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믿음이  
실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므로써 복된  
소망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